

보도일시 (인터넷) 2024. 4. 15.(월) 11:00,  
(지면) 2024. 4. 16.(화) 조간

배포 2023. 4. 15.(월) 06:00

## 해수부, 60개 항만하역장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 '22년부터 졸음운전 방지, 조도 개선 지원 등으로 민간 안전투자 촉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부산항 등 전국 항만, 60개 항만하역장에 총 17.8억 원\*을 투입하여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민간 자부담(50%) 31.8억 원, 국비(25~50%) 17.8억 원, 4개 항만공사(25%) 13.9억 지원

해양수산부는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21.7)과 「항만안전특별법」(21.8 제정, '22.8 시행)에 따라 2022년부터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 321개 사업에 총 53.2억 원을 지원하였다('23년 말 기준).

올해 2월 진행된 공모에서는 총 11개 항만의 69개 사업장에서 260개 안전 시설·장비 설치 사업이 접수되었고,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60개 사업장의 150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다.

\* 라싱케이지, 조도 개선, 보행로 도색, 스마트 에어백, 위험구역 표시 조명 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민간의 적극적인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참여 덕분에 항만하역사업장에 우수한 안전시설·장비가 많이 도입됐고, 민간의 안전투자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면서, “그러나 여전히 항만의 사고재해율은 높은 수준으로 항만하역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책임자	과 장	윤두한 (044-200-5790)
	항만안전보안과	담당자	사무관	최지명 (044-200-5791)

## 참고

## 항만 내 주요 재해예방시설 예시

구분	장비	내용	사진
충돌·끼임 방지	피닝스테이션	중량물 하역 및 크레인 작업 시 항만 내 근로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중장비 긴급제어 시스템	지능형 카메라, 레이더 센서 등을 통해 야드 하역장비(크레인 리치스태커, 지게차 등)와 작업자 간 충돌 징후 감지 시 자동으로 정지하고 경보 알람을 발생	
	차량 과속단속 시스템	야드 내 차량 과속여부를 기록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 게이트 통과 단계에서 안전교육 실시, 출입제한 등 제재를 자동으로 부과하여 항만 내 안전 주행문화를 확산	<p>과속단속시스템 개요</p> 
	컨테이너 씰 자동발급기	공'컨' 반출 시 씰(Seal) 수령을 위한 차량 기사(도보 이동 과정에서의 치임 사고(무단횡단 등 기인) 예방을 위해 터미널 게이트에 씰 자동발급기를 설치하고 물류흐름을 개선	
	졸음 운전 방지시스템	하역장비(Υ/T 등) 운전자의 동공 또는 안면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졸음운전, 전방 미주시 여부 등을 감지하여 항만 내 차량 사고를 예방	

구분	장비	내용	사진
추락·낙상 방지	라싱케이지	화물 고정 및 해제 시 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방지	
	콘 미제거 자동감지 시스템	지능형카메라로 컨테이너의 콘(Cone) 제거 여부를 자동 으로 감지하여 콘 미제거로 인한 트레일러 동반 권상, 적재 컨테이너 붕괴 및 관련 인명 피해 사고를 예방	
	스마트에어백	하역장비 고소작업 중 추락 사고 발생 시 자동으로 감지하여 에어백이 부풀어 올라 근로자의 신체를 보호	
안전구역 확보	조명탑 조도 개선	노후 조명탑 교체 및 조도 상향을 통해 근로자 및 하역장비 시인성을 개선하여 각종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	
	보행자 통로 도색	작업장 내 차량 통로와 보행자 통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행자 치임사고 예방 등 인명 안전을 확보	